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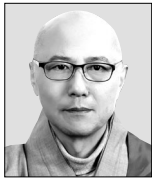
인드라랑 골목장터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6월 24일 도량 앞 골목에 귀농 인과 도시민이 어우러지는 '인드라망 골목장터'를 연다.



제41기 단기출가학교 입학식 평창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은 7월 1일 월정사 문수선원에서 제41기 단기출가학교 입학식을 연다.



동화사 세월호 피해지원 성금 기부 대구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은 6월 19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태고종 사이버전법단 모집 태고종 홍보부장 혜철 스님은 7월 15일까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 종단 소식을 전하는 사이버전법단을 모집한다. (02)739-3450



한국경제 움직이는 CEO 선정 김희욱 동국대 총장은 6월 17일 중앙일보와 JTBC가 공동으로 시상하는 '2014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CEO' 인 재경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종자연 개원 8주년 후원행사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는 6월 20일 장충동 우리함께화관에서 개원 8주년 기념 임시총회와 후원행사를 개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승 스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월 19일 만난 자리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6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당선인사차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처음에는 어렵게 시작했지만, 열심히 노력해 결국 역전승했다"면서 "열반한 교육행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불교계의 축원으로 당선됐다. 성원에 감사드린다"면서 "한국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기획실장 일강 스님, 사서실장 심경 스님, 기획국장 남전 스님,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기록문화 연구에 새 장 열겠다”

이지범 신임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소장은 연구보다는 연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링커(Linker, 연결자)’이죠. 고려대장경연구소가 새로운 20년을 열어가길 바라는 초석을 닦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7월 1일 공식 취임하는 이지범 고려대장경연구소 신임 소장(사진)은 취임 소감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이 소장은 최근 열린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회에서 인준을 거쳐 소장직으로 임명됐다. 2009년 연구소 사무국장 소임을 맡아 5년여 간을 살뜰히 살림살이를 맡아왔다. 그만큼 연구소에 가지는 애착과 이사장 종법 스님의 유지를 잇기 위한 열정을 나타냈다.

“지난 20년 동안 고려대장경연구소는 대장경 전산화 불사의 중추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담아내는 새로운 그릇을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는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차례입니다.”

이 소장이 주목하는 미래를 담아내는 그릇은 근현대 불교문화이다. 이 소장은 근현대 선지식과 재가법사의 구술 증언 채록, 자료 수집 등 관련 기록문화를 집대성하는 연구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 공식 취임 <교장> 전산화 지속 추진 근현대 선지식·재가법사 등 구술·기록 수집 사업 계획 재정 마련 방안도 고민 중

또한 조초·재조 대장경과 의천 스님의 <교장>까지 이어지는 대장경 전산화 불사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장경 전산화 불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명 <속장경>으로 알려진 의천 스님의 <교장>의 전산화가 마무리돼야 이 불사가 어느 정

도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새 기록문화를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또한 기존의 콘텐츠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운영할 것입니다.”

연구소의 기초체력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방안 중에는 고려대장경연구소 지정 도량인 서울 흑석동 달마사를 활용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또한, 대장경 교육 교재 보급도 수의 창출방안 중 하나다.

“대장경은 박제된 문화재가 아니라 살아 있는 문화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소 재원 확보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까지 진행되는 달마사의 불사가 완료되면 연구소 자료기록관과 전시실 등을 경내에 설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들이 대장경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교재 등을 제작해 보급할 것입니다.”

이 소장은 연구소 이사장 종법 스님이 계획하고 있는 ‘대장경 학회’ 설립과 ‘불교와 인지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 지평을 넓히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다.

“대장경 학회는 종법 스님이 발원한 대장경 전산화 불사의 회향점입니다. 스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인지과학과 불교와의 연계 연구도 향후 연구소의 지향점입니다. 연구소의 꿈을 이루기 위한 사업은 아직 무궁무진합니다.” 신성민 기자

필리핀 재해복구 컴퓨터 40대 전달

군중교구(교구장 정우)는 6월 18일 국제평화지원단에 컴퓨터 40대를 전달했다. 이 컴퓨터는 수해복구 지역 관공서와 피해 초등학교에 전해진다.

정우 스님은 4월 7~9일 필리핀 아라우부대(부대장 이철원 대령)를 방문해 모금한 37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컴퓨터 지원은 아라우부대가 관공서 건물 복구활동을 마무리하며 요청한 것으로 군중교구장 정우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흥법문화재단에서 1000만원, 군중교구에서 1500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법당에서 필리핀 파병장병 아라우부대 2진 환송법회를 봉행했다. 노덕현 기자



“학생들 정서능력 함양시키기 주력”

권진영 교법사 <아함사> 워크북 펴내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희박해지는 때 청소년들에게 불교로 다가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 싶습니다.”

권진영 동국대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 교법사(사진)는 최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담은 비폭력 평화학교 만들기 워크북 <아함사>를 펴냈다.

권 교법사는 “3년 전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대구 중학생 사건을 보면서 학교폭력 해

결을 위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해야겠다고 발심하고 연구를 시작해 이번 워크북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권 교법사는 학교폭력이나 왕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정서적 역량이 부족한 학생일수록 타인이 어떤 감정으로 나를 대하는지 모르게 되고, 그 결과로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 교법사는 학교나 사찰에서 부처



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아함사(비폭력, 불상해) 워크북을 운영해 학교 폭력의 이해와 해결을 자기주도학습의 원리에 의해 학생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 교법사는 “불교 수행의 근본원리인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면 정서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며 “타인에게 올바른 언어습관으로 자신을 잘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좋은 생각 즉 지혜와 자비의 말씀을 음미해 배우고 느끼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충주 흥천사 세월호 희생자 위령제



충주 흥천사(주지 동봉)는 6월 14일 대웅전서 ‘세월호 및 부산외대 희생자 합동 위령제’를 봉행했다. 희생자 유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위령제에서 주지 동봉 스님은 “세월호 및 부산외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번 위령제를 마련했다”며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슬픔과 미움을 털어내고 그 빈자리에 희망과 자비심이 채워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주필 기자

KTX범우회 창립 10주년 기념법회



케이티엑스(KTX) 기관사범우회(회장 강원규)는 6월 19일 서울 동작동 케이티엑스사업소 강당에서 ‘케이티엑스(KTX)기관사범우회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거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열린선원장 법륜 스님을 법사로, 진관사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KTX 임직원과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는 정년퇴직한 이백원 기관사에게 공로패를, 김경훈 기관사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나은 기자

정중종, ‘우리말 불교 성전’ 봉정



정중종 총무원장 법만 스님이 6월 19일 열린 법회에서 <우리말 불교 성전>을 봉정하고 있다.

(사)불교 정중종(총무원장 법만)은 6월 18일 서울 청담동 프리마호텔에서 종단 소의경전인 <우리말 불교 성전> 봉정 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 정중종 총무원장 법만 스님은 “진리의 말씀을 간추려 한 권의 성전으로 편찬했다”면서 “세존이 설하신 법을 수지하고 이를 올바르게 지니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은 없다”고 말했다.

정중종의 소의 경전 <우리말 불교 성전>은 준비 기간 3년, 제작 기간 1년이 소요된 불사로 한역아함경과 니까야 역서를 대조해 어려운 한문을 한글로 번역했고, 혼동되는 불교용어를 통일화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봉**

#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 위령제

**행**

승단의 화합과 더불어 존재의 근원적인 모습의 결림과 편벽됨이 없이 가득하고 만족하여 완전한 일체가 되어 서로 융화하며 장애가 되지 않는 원융무애 사상을 근본으로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한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 총연합 진흥회에서는 2014년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서울 동작동 현충원에서 제3회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 합동위령제를 봉행합니다.

**일시 | 2558(2014년) 6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1부 - 현충문 참배 (군악대, 의장대 동참)

제2부 - 현충관 위령제 (집전: 헤일스님 외)

제3부 - 영산제

**봉행위원**

- 대법주 (총재) : 영산당 일공 대화상
- 대 회 장 : 석연화
- 부 대 회 장 : 도선, 효진, 은곡, 법성, 월암, 김현호, 신진우, 황명철, 최기용
- 봉행위원장 : 법 봉
- 집행위원장 : 헤 일
- 홍보위원장 : 최 명하
- 의 전 : 무영, 지성
- 봉 행 위 원 : 운암, 혜승, 현덕, 체의, 도현, 약산, 경천, 반야, 청화, 관연, 이영일, 이강우, 공명, 혜암, 혜명, 혜인, 세화, 장윤희, 장연화, 오승란, 양혜영, 전혜현, 채연서, 오윤지, 김덕기, 이순이, 서순관, 김도영, 이재복, 김민희, 허형택, 민미홍, 김금숙, 김현수, 엄경애, 김호준

■ 후 원 : 국방부, 국립 현충원, 나라사랑국민연합, 불교TV BTN, BBS, 현대불교, 월남참전전우회, 전국외용 소방연합회, 자유수호 참전동지회, 지구환경운동본부, 독도수호 국민연합, 세계예술교류협회, 한국민속예술연구원, 국제동방풍수문화연합회, 월간 禪으로가시길

- 부 총 재 : 고명 대중사, 법해 대중사
- 봉행위 부위원장 : 원덕, 소운, 이승완
- 제전위원장 : 헤 일
- 준비위원장 : 윤태길

\* 나라를 위하는 숭고한 동행인이 되어 주시길 바라오며 함께 하실 법하를 초청합니다.

## 사단법인 한국 불교 종단 총연합 진흥회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704-23호 전화 : 02)857-2250 팩스 : 033)766-2557 / 02)853-0533 회장 (석연화) 011-285-6800 봉행위원장 (법봉) 010-6294-3900 사무국장 (혜광) 010-4813-6800